

安東吉安面模塼塔

秦 弘 燮

高裕燮先生著「朝鮮塔婆の研究」第二章 甃塔條(第二十八面)에 다음과 같은 一句가 있다.

「이 밖에 安東郡 吉安面、南後面에 各一基가 있다는 巷說이 있으나 아직 調査되지 않은 채 있어 그 有無도 不明이요 일찌기 新羅時代 遺塔으로 尙州邑外에 「石心土皮」의 五重塔이 있어 特異한 部類에 屬하는 것이나 大體로 塼塔 意欲을 模倣한 것으로 有名하였지만 數年前에 倒壞되어 다시 더 參考할 餘地도 없이 되었다.」

即 本論에서 例擧한 塼塔外에 二基의 未確認 塼塔이 傳하고 特異한 模塼塔이 尙州邑外에 있다고 하였다. 이들中 尙州의 模塼塔은 이미 「朝鮮古蹟圖譜」 第四卷에 登載되어 周知하는 바와 같고 一九三三年에 藤島亥治郎博士도 調査한 바 있지만 吉安面과 南後面의 塼塔에 對하여는 아직까지 아무런 報告가 없다. 筆者는 이에 對하여 關心을 갖어 오던 次吉安面內를 踏查하는 機會에 이 塼塔을 찾아 보았던 것이다. 이 調査의 根據가 된 記錄은 「古蹟調査資料」에 吉安面 大寺洞 土日部落 西南方 山麓에 있는 塼塔 一基를 記錄하고 「方形으로 高約七尺 若干 不完全하다」라고 說明되어 있는 것이었다.

現地에서는 「土日部落」을 「松仁部落」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吉安川上流가 蛇行하는 西南方 山峰上에서 조고마한 塔을 發見할 수 있었다. 이곳을 가려면 지금은 輻輳 交通이 便利해진 모양이지만 筆者가 갔을 一九五八年 頃에는 靑松郡 縣西面 和睦洞에서 고개를 넘어 約三十里를 걷는 不便한 곳이였다. 山上에서 내려다 보면 山뿌리를 돌아가는 맑은 물이 흐르고 아늑한 양지쪽에 部落이 있다. 附近에서는 寺址로 認定되는 아무 痕蹟도 찾을 수 없었지만 寺刹이 들어 앉은만한 곳이라고 느꼈다. 塔은 寫眞에서 보다 싶이 一層塔이다. 基壇도 單層으로 岩石上에 쌓았고 屋蓋는 반침이 四段이며 上面 亦 層段을 만들려고 하였던 듯하며

中央은 一段 높게 段을 이루고 있다. 全體를 雜石으로 四面의 表面을 고르게 맞추어 가면서 쌓았다. 龕室을 만들지 않았으며 別다른 表面裝飾도 全然 없었다. 「古蹟調査資料」에 「若干 不完全」하다고 한 것은 雜石으로 築造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表面은 매우 整齊되어 오히려 古蹟圖譜에 있는 尙州石心灰皮塔보다 나은 便이다. 石材의 選擇이나 築造樣式은 尙州塔과 같다고 하겠으나 灰磧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이 塔이 模塼塔인 것은 곧 짐작이 간다. 그렇다고 慶州 芬皇寺 石塔이 代表하는 것 같이 石材를 塼材와 같은 모양으로 切斷하여 築造한 것은 아니다. 高先生이 指摘하신 塼塔이 이것을 말하신 것인지는 몰라도 이外에 吉安面內에서 다른 塼塔은 아직 發見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樣式으로 築造한 塔은 지금은 完全히 없어져 버린 尙州塔外 塔總高約二m의 작은 規模지만 特異한 塔으로 注目할 만하다. 또 尙州塔이 安東을 中心한 그 附近 即 義城 善山 等地에서 盛行하던 塼塔 乃至 模塼塔의 影響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解釋되는 데 吉安塔, 亦是 이러한 데서 그러한 樣式的 發生 經緯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